

## 非專門人の 方言研究

金 完 鎭  
(서울大 教授, 國語學)

### I.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 되었지만, 방언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본격적인 국어학 수련을 쌓은 사람을 상대로 쓴 주문이었던 데 대하여, 지금의 이 글은 그런 수련을 쌓지 않은 사람들이 방언의 조사와 연구에 종사할 경우를 머리에 두고 쓴다. 말하자면 아마추어 方言學 序說이라고나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sup>1)</sup>

편집자의 청은 ‘方言研究의 意義’ 또는 그 비슷한 제목으로 써달라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말만 바꾸어 되풀이할 만용도 취미도 없기 때문에 필자 자의로 제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물론, 기회 있으면 이런 글을 한번 써볼까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는 하다.

필자는 아마추어를 존중한다. 출발에 있어서는 모두가 아마추어라는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순수한 뜻을 가지고 동참해 주는 동호인들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성숙된 아마추어의 층이 두껍다는 것은 스포츠의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도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로는 아마추어의 바람이 강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한테서 푸념을 듣는 일이 있다. 국어나 국어학과 같이 만인이 참견

1) 拙稿(1979), 方言研究의 意義, 方言 1.

하는 분야에서 학자들이 곤혹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빚어지는 책임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들에게 더 많다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틀린 의견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에게는 그것을 들어줄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어 순화니 漢字 문제니 하는 것보다는 方言 研究에 더 많은 동호인이 생기는 것을 기대한다. 한정된 논리의 선택·반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역량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의 무한의 광장이 거기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자기의 능력과 준비에 맞추어 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모처럼 공들인 일이 허사가 되어서는 안되겠거니와,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가령 음성학적 관찰에 나서는 것 같은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의 하나다. 가다가는 뛰어난 천부의 귀를 가지고 미세한 음성차를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언어지리학자 질리에롱이 프랑스 言語 圖卷을 완성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에드몽 같은 사람이 그런 드문 예이지만,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 또는 백만에 하나라고 하리만큼 흔하지 않은 것이다. 특별한 훈련과 체계적 지식 없이는 음성의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식별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저작에서도 가장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분야인 것이다.

자기가 타고난 방언에서 식별되는 음소만을 식별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귀인 것이다. 어떤 모임에서 전혀 문외한도 아닌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ㄱ과 ㅎ, ㅂ과 ㅈ이 합해서 ㅋ이 되고 ㅌ이 되고 한다는 소위 合音說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 사람은 ‘밥하고 떡하고’를 ‘바바고 떡가고’라 발음하는 지역의 출신이었기에 그와 다른 발음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바파고 떡카고’라는 발음을 들은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도, 그것까지를 자기 식 발음으로 받아 들이며 살아왔을 것이다.

이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귀라는 기관이다. 소리가 있어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 것이다. 그러기에 방언에 대한 저술을 읽을 때에는 항상 그 연구자의 출생지 또는 성장지를 먼저 생각하게도 되는 것이다.

또하나 피해야 할 일이 있다. 같은 과제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방언 조사의 연습이라면 그래서 좋다.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조사가 정확했다는 데 만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뿐, 결코 활자화 같은 것을 할 일은 아니다. 자칫하면 표절이라는 누명을 쓰기에 알맞을 것이다.

## II.

아마추어 方言學者로는 누가 적당한가. 원칙적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첫째는 다른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필드 워크의 기회를 비교적 많이 가지는 층이며, 둘째는 학문을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학문을 사랑하며 특히 향토 연구에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첫째 부류의 선구자로서 石宙明 같은 분을 들 수 있겠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방언 관계의 단행본을 간행했다는 영예를 저니게 된 사람이지만, 나비를 채집 분류하는 것이 전문이었던 속칭 ‘나비 박사’로 통하던 분이 石宙明이었다. 끝없는 호기심과 인내를 가지고 나비를 채집하고 정리하는 생활화된 습성은 방언 어휘를 수집 정리하는 데 저격이었다 할 수 있다. 제주도의 山野에서 만나는 나비들에 못지 않게 제주도의 방언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공 학자들에 앞서서 ‘濟州島 方言集’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2)</sup>

分類學 내지 生態學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생물학자들이 石宙明의 경우처럼 方言 一般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일지 모른

2)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다. 그러나 그들이 다루는 식물이나 동물의 俗名은 그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정보일 수 밖에 없다. 학회에서들 간행하는 植物名彙나 動物名彙나, 하는 것들에는 각각 사정된 한국명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인위적인 덧붙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일단은 조사했던 俗名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생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표준 명칭을 정하는 데 참조가 되는 것, 채집할 때에 지방민의 협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것이 俗名의 가치일지 모르고, 또 지방에 따라 명칭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다는 것은 번거로울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같은 식물 같은 동물들에 대한 명칭의 차이가 그 사용 지점과 함께 정확히 정리 보고가 된다면, 그것은 방언학을 위한 매우 귀중한 업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방언학자 또는 국어학자로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작업이다.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식별 능력이 몹시 미약할 뿐만 아니라, 분포 영역이나 생태 특성에 대한 예비 지식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기에, 누구나가 아는 몇 가지 종류 이상에 대한 조사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필드 워크의 노트 구석에 초라하게 남아 있을 이름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정확한 기술을 동반한 동식물명의 지역적 기술은 방언학의 절대적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물학보다는 훨씬 가까운 분야에서의 협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 民謠나 說話를 채집하는 사람들이 충실한 방언형을 유지시켜 준다면, 그 민요나 설화가 훌륭한 방언 텍스트로 공헌할 수가 있다. 민요의 경우에는 가요라는 특성상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개 방언형의 유지가 목격되는 반면, 설화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가령 金榮敦이 集成한 제주도 민요집은 매우 훌륭한 방언 텍스트로 평가되는 것이거니와, 설화집도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지닌 것이 있었으면 하고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최근의 口碑文學大系 같은 큰 기획이라면 그 '口碑性'의 예시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지역별로 한편 정도씩 원형대로의 採錄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sup>3)</sup>

학문을 직업으로 하지는 않는 부류의 人士들의 참여는 좀더 광범위할 수 있고 과제의 제약도 덜 받을 수 있다. 방언 연구만 독립시켜 행하는 경우보다 향토 연구 또는 향토사 연구의 일환으로 방언의 조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향토 연구의 독지가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그는 향토의 모든 것, 역사에서 시작하여 방언, 설화, 지명... 그 밖의 것에 관여하게 된다. 그러한 독지가가 마침 지역의 文化院 같은 기관을 맡고 있다면, 종합적 기획에 더 유리할 것이다.

전설이나 설화를 채집하는 것은 향토사 연구의 기초다. 그것은 자연 그 지방의 古老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성공한다면, 당연히 방언 텍스트를 확보할 수도 있다.

지역의 자급 학교 교사가 방언 연구에 뜻을 둔다고 할 때에는 사정이 조금 다를지 모른다. 근무의 여가에 또는 방학을 이용해서의 일이어야 하니까, 시간적으로 제약받는데다가, 주로 국어 교사라 가정한다면, 전문도가 얼마큼 높아진 방언 연구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언 조사는 찬성 못할 측면이 더 강한 것이지만, 방언 조사에 학생들의 협조를 얻는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국어 사랑'의 표어보다는 국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기 때문이다.

### Ⅲ.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일괄해서 이것은 안되고 저것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의 학문적 배경과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능력에 넘치지 않는 과제를 택해야 할 것이라는 말 밖에

---

3) 金榮敎(1965),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계속) 口碑文學大系.

는 할 수가 없다. 방언학의 기초 이론을 익히고 정명 있는 업적들을 읽으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방언을 관찰하면서 표준어를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논리적으로는 표준어와 일치되는 사실의 확인도 차이의 확인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하지만, 차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고, 차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쉽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 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차이를 인식하기 위하여는 다른 방언 예컨대 서울 방언에 대하여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의 차이는 비교적 잘 인식되는 종류의 것이다. 가령 자기 방언에서 ‘졸’이라는 것이 서울말에서는 ‘부추’이고 어느 지방에서는 그것이 ‘솔’이나 ‘정구지’가 된다는 것은 다른 품사 또는 문법 요소의 차이들보다는 인식하기 쉬운 일일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방언을 쓰는 사람이 외지 사람을 만나서 표준어로 전환할 때, 명사들은 제대로 바꾸는데, 문법 요소는 방언의 것 그대로를 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으니까’의 뜻인 ‘-으난’ 같은 것을 제주도 사람에게서 듣게 되는 일이 생긴다.

따라서 방언 연구의 초심자는 명사류, 그것도 구상명사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이 되거니와, 또 저꾸로 이런 명사들만을 다룬 방언 연구는 방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닐 때가 많다는 측정의 척도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전국적인 규모의 방언 조사를 할 때의 조사 항목은 방언차를 잘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로 준비되는 것이지만 주로 명사들로 구성되는 것은 그것들이 다루기 쉽고, 조사에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멀리는 小倉進平, 가까이는 金亨奎의 저작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4)</sup>

4)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 岩波書店.

金亨奎(1974), 韓國方言研究, 서울大 出版部.

그러나 전국적인 방언 조사의 항목으로 수록된 단어들에 대한 어형 조사 같은 것은 다시 손댈 여지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거의 정리를 마치고 출판에 들어갈 단계라고 듣고 있는 방언어휘집이 간행되고 나면, 아마추어들이 그 범위 안에서 더 손을 댄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명사를 주로 해서 방언 조사를 한다 해도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좀더 특수한 단어들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가능하다면 玄平孝가 일찌기 제주도 방언에 대하여 시범했던 것과 같은 사전 형태의 포괄적인 어휘집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玄平孝의 것은 제주도 전역을 포함하는 성격의 것이지만, 한 郡 또는 한 面을 단위로 하여 어휘집을 낸다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설사, 단어들을 기록하는 데에 가령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미비함이 있다 하더라도 큰 흠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전문가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도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sup>5)</sup>

이렇게 단어들을 수집 정리하다 보면 차츰 의미의 문제, 문법과 음운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의미의 차이란 어형의 차이보다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이 통례다. 또 그 지역 특유의 문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음운 질서의 지역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들을 기술하는 것과 함께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가령 같은 '글'이라는 명사라 해도 그 뜻과 쓰임새가 방언에 따라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글이 더럽다' 할 때 중부 지방의 사람은 표현이 좋지 않은 문장을 생각하지만, 평안도 사람은 문장이 아니라 깨끗치 못한 글씨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배워 준다'가 '가르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평안도 방언의 한 특징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현을 굳이 쓴다면, '읽어 준다', '먹어 준다', '가 준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울만한 상대가 되지 못하지만 선심을 베풀어 배우는 척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의 뜻도 다르다. 漢字로 써서 하나는 '疣'

5)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 精研社.

요. 또한나는 ‘痣’인데, ‘疣’는 피부의 각질이 이상 증식하여 덩그스름하게 돌기를 이룬 것이고, ‘痣’는 검은 점이다. ‘疣’만을 사마귀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痣’는 그저 ‘점’이 될 뿐이지만, ‘痣’까지를 사마귀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점’이란 꽤 큰 것이고 점다기보다는 점푸른 것 또는 점붉은 것이 된다. ‘疣’와 ‘痣’ 양쪽을 다 ‘사마귀’라 할 때에는 ‘痣’쪽에 더 중점이 놓인다. ‘疣’는 ‘무사마귀’라 구별하여 부르며, 오염된 낙숫물이 묻어 생긴다는 속신이 있다. 그러나 곤충으로서의 사마귀는 이 ‘무사마귀’와 연관되어 그것을 없애는 데 효험이 있다고들 말한다.<sup>6)</sup>

함경도 방언에서는 ‘어느’가 관형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도 쓰여 중세 국어에서의 용례 ‘어느 다 슬바리’를 상기케 한다. ‘어느’와 함께 ‘어찌’라는 부사는 또 따로 있으니, 어느 때에 ‘어느’가 쓰이며, ‘어찌’와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를 검토하는 것은 좋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泰安半島 일부 지역에서는 동사 ‘오다’의 활용에 ‘오너라’의 ‘너’가 끼어들어 ‘와서’의 뜻으로 ‘오너서’가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왔다’까지가 “\*오너싸다”로 실현되는 것은 아닌 것이 모하다. 경북 지방에서의 ‘먹었는 사람’, ‘갔는 사람’도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는 어법이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먹은 사람’, ‘간 사람’하는 지역의 질서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경남에서 들을 수 있는 ‘이리 가구나!’ 하는 표현도 우리를 놀라게 한다. ‘크구나!’, ‘중구나!’처럼 형용사라면 어간에 그대로 ‘-구나’를 붙여 쓸 수 있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가는구나!’, ‘오는구나!’하고 반드시 ‘는’이 들어가야 하는 줄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가구나!’가 경이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 방언의 방언적 사실에 대하여는 그 방언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 방언권의 사람이 조사 연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기 방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 세에서는 자기 방언에 대한 흥미, 또는 문제 의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6) 訓蒙字會에서는 痣를 ‘사마귀 지’라 하고 있다.



단점이 있다. 표준어 또는 다른 방언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자기 방언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의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 방언을 조사 연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서울말을 비롯한 다른 지방의 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제주도 방언에 관한 연구가 다른 방언들에 대한 연구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이 진척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육지의 언어와 다른 점이 많다는 인식이 일찍 이루어진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제주도 방언만이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다. 물론 방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지역의 방언이라도 연구자의 호기심을 이끌만한 특이한 사실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는 그 특이한 사실들을 찾을만한 능력과 노력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인 것이다.

문제의 제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충청도의 한 지점에서 간장을 뜻하는 ‘지랑’을 확인했다고 하자. 혼하지 않은 어형을 만났다 하여 이 지방에서는 ‘지랑’이라고만 하고 ‘간장’이라는 말은 쓰이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그 고장에서 자라면서 열살이 넘도록 ‘지랑’이라는 어형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 지방인 것이다. 같은 계층에 속하는 두 집안의 말을 비교해보자.

A : ○간장 : ×지랑, ○배추 : ×배차

B : ×간장 : ○지랑, ×배추 : ○배차

모든 단어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상스럽다고 해서 꾸중을 듣는 어형,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권장되는 어형이 있는 법인데, A의 집과 B의 집에서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쪽 집에서는 ‘간장’, ‘배추’라야지 ‘지랑’, ‘배차’여서는 안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바로 그것이 권장되는 어형인 것이다. 결혼 관계 기타의 사회적 배경이 관계되는 것이겠거니와, 어떻게 해서 단어의 교체가 일어나는가 하는 현장을 관찰할 기회를

연구자는 가진다 할 것이다.

문법 현상의 예를 들어 보자. 방언에 따라 공손법의 등급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와는 달리 같은 ‘하계’체가 쓰이는 대상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계’체란 일반적으로 손아래 사람에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자기의 어머니나 할머니 같은 집안의 손위 부녀자들에게 하계체를 쓴다는 것이다. 하계체를 쓰지 않고 남에게 대해서처럼 연령에 걸맞는 경어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게 되면 거리를 두고 경원하는 것이 되어 섭섭함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 Ⅳ.

언어 들은 지식이지만, 한반도에 있는 식물의 종류는 구라파 전체의 그것과 숫적으로 맞먹는다고 한다. 비록 작은 국토이지만, 그 안에서의 방언의 차이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것들을 연구하는 일차적 책임은 이른바 방언학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전국 방방 곡곡에서 영위되고 있는 언어 생활을 한정된 수의 방언학자들이 다 관찰할 수는 없다. 전문의의 인사들이 필요하고 또 환영될 이유가 여기에 있거니와, 분야에 따라서는 이른바 전문의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도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다만, 경계해야 할 일은 방언학자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뜻에서였다. 하나는 상당한 전공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드는 일의 위험함을 말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현재 방언학자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방언에 대한 연구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처 손이 닿지 않아서 그들이 하고 있지 못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방언들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언어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 같

은 것은 그 지역 출신의 유지들이 관심을 가지기에 특히 알맞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몇가지 유형의 예들을 들어 보았다.

방언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문헌에서 찾지 못하는 설명을 방언의 용례에서 찾으려는 주석학자도 있을 것이며, 한자어나 외래어에 대체시킬 어형을 찾는 국어 순화론자도 있어서 좋다. 물론 신선한 표현을 찾으려는 문학도도 환영될 일이다. 그 밖의 어떤 동기에서였건, 언어가 살아 숨쉬는 방언의 현장에서 뜻있는 同好人들을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이다.

